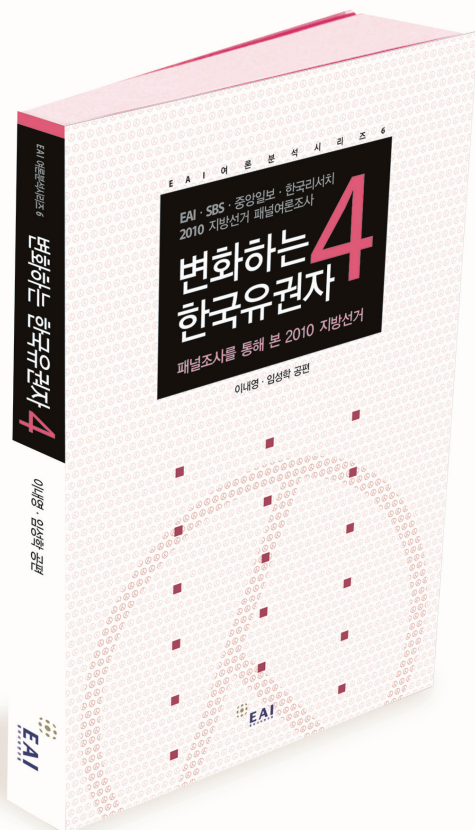


EAI 여론분석시리즈 6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 :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 예측을 빚나간 2010년 6·2 지방선거 변화하는 민심을 파헤친다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 여론분석센터는 변화하는 한국의 민심을 읽기 위해 2006년 지방선거부터 패널여론조사를 수행해오고 있다. 동일한 대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는 패널여론조사는 외부 환경과 내부적 역동성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민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모두가 여당의 승리를 점쳤던 2010년 6·2 지방선거,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EAI 패널조사연구팀은 이 책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의 변화하는 민심을 추적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진단한다. **2010년의 민심을 읽어야 2012년 대선택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E A I 여론분석시리즈 6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2010 지방선거 패널여론조사

##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이내영 · 임성학 공편

- 발행처 : (재)동아시아연구원
- 쪽 수 : 236 쪽
- 판 형 : 신국판
- 발행일 : 2011년 2월 14일
- 가 격 : 15,000 원
- ISBN 978-89-92395-13-7 (93340)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4가 310-68번지 삼풍빌딩 9층  
Tel. 02.2277.1683 Fax 02.2277.1684  
담당자 : 신영환

## 2010년의 표심을 통해 2012년 유권자의 선택을 읽는다

### 6·2 지방선거의 이변을 읽어야 2012년이 보인다!

2012년이 다가온다. 1년 후면 총선과 대선이 연이어 열리고 누군가는 국민들의 선택받고 누군가는 선택받지 못할 것이다. 선택의 결과는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보다는 선택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진다는 점에서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이 이번에 발간한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 :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는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새로운 투표패턴을 패널조사를 통해 분석한 여론분석서이다. 유권자의 새로운 투표패턴에 대한 분석과 예측이 가능한 것은 EAI 연구팀이 채택한 패널조사의 이점 때문이다. 패널조사는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반복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유권자 표심 변화를 직접 조사,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론이다. EAI는 조사비용과 데이터 관리 및 분석의 어려움 때문에 한국 선거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패널조사를 2006년 지방선거에서부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 이어 2010년 지방선거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동아시아연구원 패널조사연구팀은 강원택(서울대), 권혁용(고려대), 김성태(고려대), 김민진(경희대), 박찬욱(서울대), 서상민(EAI), 서현진(성신여대), 유성진(이화여대), 이곤수(EAI), 이내영(고려대), 이우진(고려대, 조사팀위원장), 이현우(서강대), 임성학(서울시립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지병근(조선대), 진영재(연세대) 등 선거연구 전문가들로 팀을 이뤄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다. 특정 당파에 치우치지 않고 최고의 선거연구자들이 5년 넘게 호흡을 맞춰 공동작업을 해 온 축적된 학문적 권위와 신뢰성만으로도 이들의 분석 결과에 관심을 갖게 된다.

### 2012년 투표선택 : 5·31 버전 vs. 6·2버전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면서 유권자의 투표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이 두 시기 유권자 투표패턴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민심이 어떻게 표출될 지 가늠할 수 있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는 대이변이 연출되었다. 애초 한나라당의 낙승이 예상되었지만, 한나라당은 서울, 경기, 대구, 경북, 울산, 부산을 수성하는 데 그치고 10개 광역단체장을 야권에 내줬다. 하지만 한 달 뒤 7월에 열린 재보궐선거는 한나라당의 승리로 끝났다. 참여정부 시기에는 탄핵 후폭풍으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승리한 17대 총선을 제외하면, 유권자의 표심을 일관되게 야당인 한나라당에 표를 몰아주었던 노무현 정부 시기와는 대조된다. 좀 더 구체적인 예측을 위해서는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와 비교하여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새로운 투표행태들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 심판투표(punishment voting)인가, 균형 잡기 투표(balancing voting)인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실시된 5·31 지방선거는 물론 각종 재보궐 선거에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에 표를 몰아줬던 유권자의 표심은 현직 정부의 실정에 대한 ‘견제와 심판’의 심리였다. 이러한 현정부의 실적에 대한 ‘회고에 기초한 심판’(retrospective punishment)의 투표 심리는 이후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으로까지 이어졌다. 반면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가 발견한 2010년 투표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선택은 어느 특정 세력의 독주나 힘의 우위를 견제하려는 전형적인 ‘균형잡기’ 투표였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압승한 한나라당이지만,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쟁불

사, 참여정부 심판론, 전교조 심판론을 앞세워 압도적 힘의 우위를 보이던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어떻게 선거 막바지에 야권으로 힘을 실어 주었는지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MB 심판론’의 응징투표를 할 것인가? 여당과 야권 진영 사이의 절묘한 힘의 균형을 맞추는 투표를 할 것인가? 이것이 2012년 총선과 대선 전망의 핵심 포인트이다.

### 차기 대선 어젠다는? : 경제인가, 복지인가, 평화인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이슈 투표 양상 역시 새롭다. 천안함 사건의 발발로 선거 기간 내내 언론을 지배했던 북풍 이슈는 보수층의 결집보다 야권의 결집을 유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한편 무상급식이나 세종시와 같은 지역경제 및 실생활과 가까운 이슈들이 천안함 사건의 충격 속에서 선거 어젠다로 떠올랐다. 이를 계기로 시대정신과 유권자의 요구가 성장과 경제로부터 진보와 복지로 이동했으며 복지 담론이 2012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이슈태도(issue attitude)에 대한 분석 결과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좌우할 핵심 어젠다와 시대정신을 읽어내는 데 실마리를 던져줄 것이다.

### 3대 정치균열의 부활과 상충적 유권자(ambivalent voter)

한국사회 3대 정치균열 — 지역, 세대, 이념 — 이 2012년에는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 2002년 대선에선 지역균열이 약화되고 세대와 이념 균열이 두드러졌다면 2006-2007년의 정권교체기엔 “경제 살리기”라는 이슈의 블랙홀이 만들어지면서 ‘진보적인 한나라당 지지층’과 ‘진보적인 이명박 지지층’이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다시 젊은 세대와 이념성향에 따라 지지후보가 갈라지는 양극화 현상이 부활했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 사이의 양극화는 심화되었지만, 양 가치를 공히 인정하고 공히 배척하는 상충적 유권자들의 선택이 결국 승부를 가르는 최종 변수가 되었다는 것이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의 결론이다.

### 분할투표의 제도적 효과 : 연합강화인가, 균형인가?

1992년 이후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한 해에 열린다. 이러한 제도적 효과만으로도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 다른 셈법이 나올 수 있다. 연 이은 선거에서 한 정당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두 선택을 달리 하여 균형을 맞추고자 할까? 2010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선거, 광역의회,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교육감 등 1인 8표제 하에서 한 정당에 몰아준 투표자와 각각의 지지정당을 구별한 분할투표자에 대한 분석은 2012년 총선-대선에서의 투표선택을 예측하는 데 귀중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 후보단일화, 만병통치약인가?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은 어렵게 후보단일화에 성공하면서 반MB 견제론자들의 투표선택지를 단순화시켰고 이를 통해 표의 분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현재 야권에서 차기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해 야권 후보단일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유력주자와 야권 차기 주자 간의 격차가 상당하고, 여야 대결구도가 아닌 박근혜 전대표에 대한 찬반구도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후보단일화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야권 후보단일화의 경험은 2012년 후보단일화의 파괴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예측지표가 될 것이다.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 :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년 지방선거》는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결정 요인에 대한 한층 심화된 인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2012년의 향방을 가늠해 볼 핵심 변수들에 대한 나름의 판단기준을 제시해 줄 것이다.



# 목차

- ● 서문
- ● 2010년 6·2 지방선거 패널조사의 방법과 운용 \_김춘석

## 제1부 제5회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과 투표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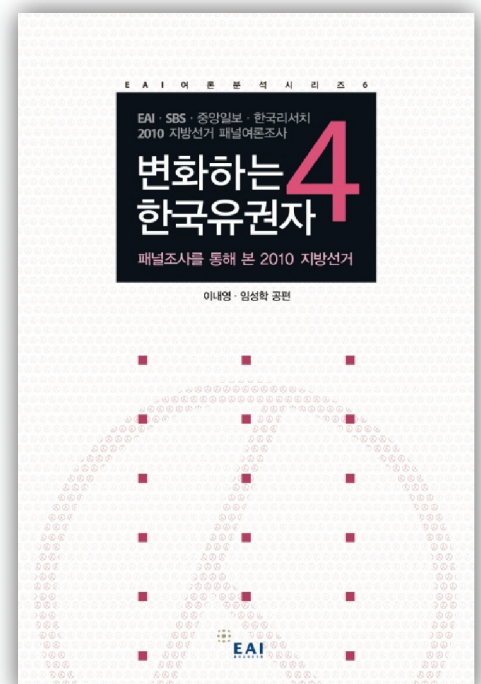
1. 천안합사건과 지방선거 \_강원택
2.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분할투표의 유형과 원인 \_지병근
3. 부동산의 특성과 투표행태 \_유성진
4. 50퍼센트 지지율 대통령이 왜 심판받았을까? \_정한울
5. 시도지사선거의 현직효과 \_이근수

## 제2부 한국의 사회균열과 지방선거

6. 6·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이념에 얼마나 충실하게 투표하였나? \_이우진
7. 6·2 지방선거와 세대균열의 부활 \_이내영
8. 지역주의 분열의 완화 가능성은? \_임성학

## 부록

## 필자약력



## 필자약력

### 강원택

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동아시아연구원 시민정치패널 위원장.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졸업.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 정치학 박사.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임. 주요 논저로는 《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Protest Voting and Abstention in Plurality rule elections: An Alternative Public Choice Approach” 등이 있다.

### 김춘석

현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 수석부장.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박사과정. 주요 논저로는 “10·26 국회의원 재선거 사후 여론조사를 통해 본 유권자 표심”, “18-19세 유권자의 사회의식 및 정치의식 : 20세 이상과의 비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반성” 등이 있다.

### 유성진

현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뉴욕주립대학교(스토니브룩) 정치학 박사. 주요 논저로는 “Two Types of Neutrality: Ambivalence vs. Indifferenc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과 신뢰”, “국회의 사회통합기능과 국민의 신뢰수준” 등이 있다.

### 이곤수

동아시아연구원 선임연구원.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 박사.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최근 논저로는 “The Politics of the Disability Rights Movements,” “사회적 위험과 위기대응적 사회정책의 평가”, “Economy President?: Exploring Determinants of Presidential Approval of Myung-bak Lee” 등이 있다.

### 이내영

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학교(메디슨) 정치학 박사. 주요 논저로는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1, 3》(공편), “Assessment of 5.31 Local Elections and Prospects for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The Politics of Generation in South Korea” 등이 있다.

## 필자약력

### 이우진

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데이비스) 경제학 박사. 주요 논저로는 *Racism, Xenophobia, and Distribution: Multi-Issue Politics in Advanced Democracies*, “Moral values and distributive politics in the US,” “Inequality and redistribution revisited,” “Income distribution, redistributive politics and economic growth” 등이 있다.

### 임성학

현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주요 논저로 “17대 총선의 선거자금과 정치개혁의 효과”, “동서양 거버넌스: 수렴과 분화”, “대통령과 권력구조” 등이 있다.

### 정한울

현 동아시아연구원 선임연구원.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과박사 과정 수료. 주요 논저로는 《박근혜현상》(공저), “이슈와 한국 정당지지의 변동”(공저), “국제여론을 통해 본 중국위협론의 평가와 전망”(공저), “Fluctuating Anti-Americanism and ROK-US Alliance”(공저) 등이 있다.

### 지병근

현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미국 미주리대학교 정치학 박사. 주요 논저로는 “Economic Origins of Electoral Support for Authoritarian Successors,” “Anti-Americanism and Electoral Politics in Korea,” “Democratization and Changing Voting Behavior”(공저) 등이 있다.



## 동아시아연구원 소개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 원장 이숙중 성균관대 교수)은 2002년 5월 설립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EAI는 다양성, 관용, 책임감, 투명성을 담보하는 자유주의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는 설립 이래 건전한 지식을 생산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내외 학자들과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의 산재한 지식들이 EAI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변화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식의 그물망을 짜고 변화의 추진차로서의 역할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지식의 자양분으로 짝을 띄우고 세상이 그것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EAI의 변함없는 목적이자 역할입니다.

EAI는 독립 싱크탱크로서 국내외 핵심 이슈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중심으로 국제회의와 포럼, 교육,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아이디어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의 연구활동은 외교안보 프로그램과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개 연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국가적 현안 및 사회이슈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한 발 앞선 정책대안을 생산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EAI 연구팀은 이론과 정책 그리고 민의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된 국내외 학자와 정책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또한 EAI는 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로서 미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 등 해외 싱크탱크와 공동연구 및 인적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식네트워크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AI는 연구활동의 성과를 단행본, 영문저널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SSCI 등재지), 위킹페이퍼, 이슈브리핑 등의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미디어를 통한 지식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와 포럼 그리고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각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들 간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전략과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EAI 외교안보대전략시리즈

1.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 그물망국가 건설
2.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3.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4. 2020 중국 리스크 : 중국경제 중장기예측과 리스크분석
5. 변환시대의 한미 안보협력 : 미래를 향한 지휘관계 재건축
6. 동아시아 공동체 : 신화와 현실
7. 21세기 신동맹 : 냉전에서 복합으로
8. 북한 2032 :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 EAI 민주대전략시리즈

1. 대통령의 성공조건 I : 역할 · 권한 · 책임
2. 대통령의 성공조건 II : 회고와 제언
3. 정치개혁의 성공조건 : 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
4.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 현장에서의 회고와 전망
5. 국회의 성공조건 : 윤리와 정책
6.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7. 분권헌법 : 선진화로 가는 길
8.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 : 67일이 5년을 결정한다
9.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 영국 보수당의 역사
10. 세계화 제2막 : 한국형 세계화의 새 구상

### EAI 여론분석시리즈

1.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 국민여론 · 소수정부 · 정책선택
2.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3.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 패널조사를 통해 본 5·31 지방선거
4.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5.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 :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선거
6.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 :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 EAI 영문서적

1. *Between Compliance and Conflict: East Asia, Latin America, and the "New" Pax Americana*
2. *Power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Shifting Strategies*
3. *Party Politics in East Asia: Citizens, Elections, and Democratic Development*
4. *Collective Violence in Indonesia*
5. *The Park Chung Hee Era: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 EAI 영문저널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SSCI 등재지) 2001-

EAI에서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는 EAI 홈페이지([www.eai.or.kr](http://www.eai.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